

重量荷物運搬新型氣球

—加서 開發, 救助用으로도—

荷物 및 資材運搬用新型氣球船이 캐나다의 번 도젠 커머셜 디벨로프먼트會社에 의해 開發되었다.

이 氣球船은 헬륨가스를 使用한 直徑 50m의 氣球兩側에 裝備한 2個의 터빈엔진으로 航行하게 된다.

從來型보다 小型化되었으므로 製作原價가 2分の 1정도이며 t當 輸送原價도 約 8分の1, 1회에 運搬可能最大荷重은 38t이라는 特徵이 있다.

『LTA20-1』이라는 이 新型氣球船은 특히 大型트럭이나 헬리콥터등에 의해 운반되던 各種重量物을 원가가 低廉한 方法으로 운반하려는 目的에서 개발된 것이다.

이 기구선은 헬륨 가스를 注入한 直徑 48m의 기구와 이에 달린 투인 터빈엔진과 콘드라로 構成되어 있다. 기구에 의해 올려진 하물은 터빈엔진으로 前進시키되 最多重量의 航行高度는 3,000m이고 時速은 13km이다.

기구의 製作費는 約 450萬弗이며 이미 美國이나 蘇聯에서는 導入되었다. 또한 重量物의 운반이 외에 消防이나 救助用으로도 개발하고 있다.

太陽熱發電所受熱裝置

—美 더글라스서 實驗成功—

美에너지省은 太陽熱發電所 第

1次計劃에 採擇되는 맥드넬 더글라스會社의 太陽熱中央受熱裝置와 보일러에 대한 評價實驗에 完全 成功하였다.

今年初에 着工한 第1次太陽熱파이로트發電所는 오는 82년에 竣工하도록 進工中이며 이번 평가실험은 뉴멕시코州 알바카키의 샌더이 파보라트리즈中央受熱裝置試驗施設로서 지난 79年 2月부터 實施中이었다.

이 수열장치는 태양에너지를 모아 이를 實用에너지로 變換하는 태양발전소의 中心設備가 되는 것이다.

이는 더글라스가 獨自構想開發한 것으로서 同社의 太陽發電所組織은 태양을 追跡하는 多數의 太陽熱反射鏡을 配置하여 高塔頂上에 設置한 수열장치로서 反射熱을 集中捕集, 수열장치속을 循環하는 물을 沸騰시켜 約 560°C의 高壓蒸氣로 바꾸는 構造이다.

美에너지省이 推進하는 캘리포니아州 바스토우近郊에 建設中인 파이로트발전소는 이 고압증기를 使用, 從來型 發電機를 稼動시켜 既存送電線을 통하여 10,000 KW의 電力을 송전하는 設計이다.

실험설비는 더글라스의 發注로 록웰인터내쇼날會社의 로케트라인部에서 製作한 한장짜리 수열판이며 파이로트발전소에서는 높이 13.7m, 直徑 7m의 圓筒狀受熱보일러裝置에 24枚의 수열판을 着設한다.

수열판은 直徑 1.27cm의 高強度防鏽800스틸合金製튜브를 水

平으로 늘어 놓으며 그 사이를 縱方向의 繼板으로 固定하고 上下에 各各 流入口와 流出口가 附着되어 있다. 또 面板表面에는 高性能의 熱吸收塗裝이 되어 있다.

제1차 태양열파이로트발전소는 에너지省, 南캘리포니아 에디슨會社, 로스앤젤레스電氣水道局, 캘리포니아에너지委員會의 共同計劃으로서 事業을 추진하는 것이며 더글라스는 設計概念開發의 中心이 되어 있다.

對中共市場開拓에 그룹化

—스웨덴등서 先頭달러—

技術 또는 經濟先進國들은 中共市場을 開拓하는데 自國內 企業들이 合同進出하려는 傾向이 엿보인다. 強大國 등의 中共市場進出러시에 질세라 餘他先進國들은 합동진출경향이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中共에 近接한 香港에 合同事務所를 開設하고 中共市場開拓業務에 熱中하고 있다.

그 例로서 스웨덴의 스벤스카 프로젝트파부리켄이 프로젝트 가더리우스와 합동하여 香港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진출루트를 單一化하고 있다.

이같은 實例는 스웨덴에 局限된 狀況이 아니고 各國 企業들이 個別的으로 개척하려던 것을 新會社를 合同設立하여 그 窓口를 단일화함으로써 中共에 대한 마케팅, 콘택트 가이던스情報의 蒐集, 商談의 促進 등을 企圖하려는 것이다.